

농촌 노인단독가구의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Home Management Performance and Problem of Rural Elderly Living Alone*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채옥희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prof. : Ock-Hi, Cha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goal of this study is mai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home management which includes their family relationship, family finance, and household work carried out in their domestic lives and diagnosing problems possibly resulted from the condition. The result includes the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elderly living alone:

They have lived in rural area since their marriage which is over 40 years long in average, They tend to be satisfied with living apart themselves. The majority of the families are the first son in their family.

In home management regard:

First, in family relationship, the way the elderly in their nuclear family state communicate with their spouse is limited, and they hardly speak together. So it is encouraged for couples to forge their own specific relationship and to plan for their old age in their younger age. Also, they tend to be satisfied with living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but at the same time, the closer they live in distance from their children, the more often they meet their children as well as they talk on the phone. They especially depend on their first son for offerings for ancestors and matters to occur after their death, while they get emotional support from daughters.

Second, in family finance, their income varies in range from 200,000 to 3,000,000 won. In the majority of the families, the wives are in charge of finance. The cost of living is mainly spent on food, clothing, and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이루어졌음.

housing, or the cost of offerings for ancestors if they are the head family.

Third, Meanwhile, the housewives under 70 years old are positive about household work and tend to consider it pleasant for their children and their husband. Generally,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dislike household labor. For example, food preparation is especially considered a major problem. Community dining rooms, food delivery service, volunteers, and home helper and neighborhood could be help.

I. 서론

현대 사회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인구 구조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0%, 1996년 6.1%로 증가하였고, 다가오는 2000년에는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20년에는 13.2%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통계청, 1996).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노인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4.23%에서 1995년 12.73%로 급증하였다(통계청, 1995).

노인단독가구는 초기에는 노인 스스로가 선택한 자발적 가족형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핵가족 선호와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노인세대들이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단독가구를 형성하며 노년기 핵가족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는 인구비례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노인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부족을 가져오고, 그 변화속도에 맞추어 복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단독가구의 보편화 현상은 이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한층 가중시키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함은 사회 정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농촌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되고, 노인단독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노인 세대의 대부분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단독가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농촌 단독가구 노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평생동안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보다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주택마련에 투자하므로 노후를 위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급진적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 등은 세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되므로,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살아갈 동안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농촌단독가구 노인들은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가사노동과 경제적인 문제 등 가정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활을 위한 필연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데 불안을 느끼고, 실제로 전체 단독가구의 42%가 가사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진·채옥희, 1995).

농촌가구의 1/3을 차지하는 영세농의 대부분이 노인가구이고, 단독가구 노인들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과 달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농촌 노인단독가구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인복지의 대상은 무의탁 노인에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가정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들이 노인핵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경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단독가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노인단독가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형태로 독신 또는 부부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농촌실정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독신 또는 부부만으로 생활하는 독립된 가구를 노인단독가구로 정의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출가 후 노인 혼자서 또는 노부부가 살아가는 시기는 최근 20년 사이에 10년 이상 증가하였다(중앙일보, 98. 3. 19).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령화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노령화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및 세대간 동거의식의 변화 등과 결부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현, 1999).

이가옥 외(1989)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노인단독가구가 대도시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많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남자노인의 90%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 외(1996)의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소득원으로 자녀의 보조(68.1%)가 가장 높고, 근로소득(37.1%), 재산소득(24.1%), 공적부조(17.4%), 연금(9.6%)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이 43.2%, 불만족이 27.2%로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상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노인이 더 많고, 소득이 20만원, 여자노인 75세 이상, 무학력 노인은 불만족해 하는 반면, 소득 60만원 이상, 64세 이하, 중졸 이상은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선희(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방문이나 자녀연락이 높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노인 일수록 별거자녀와의 상호연락이 빈번하다고 한다.

한경혜(1996)의 연구에 의하면 73.1%의 단독가구

노인들이 5년 이상, 20.6%의 노인들이 20년 이상 단독가구 형태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를 형성하게된 배경은 자녀의 결혼과 독립이나 자녀의 직장 또는 교육관계가 4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따로 사는 것이 좋아서라거나 자녀와 갈등 없이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노년기에 부부중심으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고영수,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가구노인가정이 증대되면서 노인들도 자립의식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경제적인 여건만 주어진다면 자녀세대와 별거하여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편안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2. 노인단독가구의 가정경영

노인단독가구는 산업화에 따른 자녀세대와의 분리,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변화 등의 불가피한 변화로 형성된 노년기가구는 활력이 있는 생활을 위한 요구가 부족하다. 노인단독가구는 일반 가정과 달리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 일상생활을 충실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사노동과 그 밖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사노동 보조자나 간병인 등이 없어 단독가구 노인들은 가정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스웨덴이나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가사보조자(home helper)의 채용 등으로 보완적인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가정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들이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기능을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를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가정경영 행동을 가족관계, 가계관리,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자녀들의 독립으로 부부 둘만이 남게되므로 제 2의 신혼기를 경험하는 노부부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여성들은 나

이가 들수록 사회적 친화력이 증가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져 바빠진다고 한다. 부인이 젊은 시절부터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웠던 남편에게 불만스러워했다면 노년에 부부불화가 더 심화되면서 황혼이혼도 불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를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고찰해보기로 한다.

①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증진시키고 갈등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부부관계이므로 남편은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의사소통의 방법(독선형)을 주로 사용하고 아내는 그의 지시를 수용하고 순종하는 의사소통 방법(순종형)에 익숙하다.

노년기에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감소를 가져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부부갈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김태현, 1999).

모선희(1997)의 연구에서는 매일 대화가 28.2%, 자주대화가 43.7%로 비교적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나눈다고 하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대화를 하는 23.6%와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46%로 보아 부부간의 문제해결을 대화로 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일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노부부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새로운 친밀감이 요구되므로 부부가 그 생활 환경에 적응해 가는 동안 자연히 갈등이 발생되고, 일반부부와 마찬가지로 친밀감과 함께 갈등이 공존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대화나 취미를 늘려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부부문화를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② 부모-자녀관계

노년기의 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국가나 지역, 또는 생활해온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령자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충실감이나 행복감이 가족이나 자녀 중에서 고령자 자신의 존

재가치가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淺田幸子の 6인, 1995).

서병숙·이현(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 핵가족화의 증가현상과 함께 노인세대의 의식이 변화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노부부는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비율이 노인의 30-50% 정도로 나타났다. 노인 스스로 단독가구를 형성한 경우는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후에도 혼자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Mercier 와 Powers (1984)는 농촌노인들이 도시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더 의존적이고 정서적 지원과 도움을 더 기대한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1981년부터 1991년에 걸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노부모와 자녀와의 동거관계가 [동거형]에서 [별거교류형]으로 변화해 가는 경향이다. 특히 별거교류형에서 별거자녀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와 접촉이 많으나 만나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다. 특히 자녀와의 교류빈도가 높을수록 단독가구노인들은 정신적으로 더 자립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淺田幸子, 1995).

모선희(1997)의 연구에서는 별거자녀와의 상호방문은 주 1회 이상이 9.4%, 월 1-2회 정도가 17.3%, 3개월에 1회 정도 28.9%, 6개월에 1회 정도 21.8%, 년 1회 이하 15.2%, 특별한 경우에만 6.1%, 전혀 만나지 않음 1.3%로, 자녀와의 상호연락은 주1회 이상 39.0%, 월 1-2회 정도 36.1%로 상호방문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독가구 노인들의 49.7%가 비동거 자녀중 장남 부부와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2.4%가 딸 부부이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결혼한 딸과의 접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연락은 대면접촉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50%정도가 주 1회 이상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6).

이상에서 볼 때, 노인자신들도 단독가구를 이루는 의지가 강하고, 자녀와의 동거보다 별거교류에서 전화나 대면접촉을 통해서 더 만족해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2) 가계관리

가계관리는 노년기에 보여지는 중요한 경제문제로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집중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숙재 외(1996)의 연구에서도 노인가정은 총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및 총 지출액이 모두 낮았고,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액도 낮으므로 노인가정이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전체노인의 26.8%가 월 10만원 이하의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으며 44.5%가 월 수입 20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심영 외, 1996).

노년기 가정의 지출을 살펴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의료비 지출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생활문제 중 건강 및 의료비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홍성희 외, 1997).

노후대비에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노인이 61%로 도시보다는 군 단위의 농촌이 더 많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가 76.8%로 가장 미비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 노후준비를 자립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영애 · 이길표, 1997).

임정빈의 7인(1994)은 생활비의 관리유형을 부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생활비 지출은 부부간 분담하거나 대부분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Pahi(1989)는 소득관리와 가계지출 책임여부에 따라 가계관리 유형을 전액 남편이나 아내관리형, 공동관리형, 개별관리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단독가구 노인들은 특별한 자립기반 없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심리적·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수입감소 및 경제적 의존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경제문제는 노인단독가구의 자립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문제를 가계관리의 차원에서 소득원과 지출 항목 등에 대해서 단독가구노인은 어떠한 관리 유형인지 살펴본다.

3)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노동자체가 축적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매일 반복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정생산 활동으로서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은 노인이 돌보아야할 자녀가 없고, 가정생활이 일반가정보다 비교적 단순하므로 그 시간이 일반가정에 비해 적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가족도 중심적 가사인 일상적 구매, 식사의 준비와 설거지, 세탁이나 청소 등 의식주관리는 자녀와의 동거나 별거와 관계없이 여자노인의 역할이다.

가사노동 시간은 연령이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다. 여자노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20-50대 주부와 비교해 3.63시간으로 작고, 75세 이상의 집단과 그 아래 집단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75세 이상의 집단은 2.71시간, 그 아래 집단은 3.20시간 그리고 건강이 좋은 노인집단이 4.13시간으로 나타났다(조명희 외, 1997).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50대가 되면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60대 이후 노인이 되면 가사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조영희, 1999). 즉 가사노동에 대해 여자노인의 과반수 정도는 즐겁지도 귀찮지도 않게 느끼고, 40%정도는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외, 1997).

가사노동 내용별로 볼 때 吉田夫美子(1972)는 노부부세대의 식사준비, 청소, 세탁, 재봉, 장보기 중 노인부부세대가 좋아하는 것은 요리가 40%, 재봉이 60%로 나타나 취미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은진·채옥희(1995)의 연구에서는 식사준비는 비교적 좋아하는 영역인데 비해 설거지, 청소나 집안정리, 세탁 등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기기의 활용은 가사노동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제한된 시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경감시켜주므로 필수적인 기구이다. 그러나 단독가구노인주부는 기기의 유지·관리에 시간이 들고, 기기 구입에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므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며, 기기의 활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단독가구 노인도 일반가정의 가사노동과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생활을 위한 필수노동을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 청소, 구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독가구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도 가정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4-6시간은 가사노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혼자 사는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서비스를 적극 시행키로 하였으나 이는 도시거주 노인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농촌의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운영이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자녀, 사회봉사자가 도구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는 전북지역 군산 근교의 농촌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중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개별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에 걸쳐서 이루어 졌으며 조사대상자의 세부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노인 단독가구의 특성

노인단독가구의 형성기간은 10년 미만이 5사례이며 10년 이상에서 20년까지가 9 사례이다. 나이가 많아도 형성기간이 짧은 사례는 대부분이 장손며느리로서 시부모가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경우이다(사례 7, 9, 10, 11, 13). 혼자 사는 여자노인들은 5년에서 10년 동안 독거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결혼지속기간이 40-44년(사례 7, 8, 9, 10, 13), 50-59년(사례 1, 3, 4, 6, 11, 14), 60년 이상은 사례2와 5이다. 이들 중 사례 7을 제외하고 결혼후 줄 곳 현재의 농촌에서 40년 이상 생활해오고 있다.

단독가구형성이유는 외적으로는 “자녀들의 출가와 도시의 직장진출이며”(사례 2만 제외), 내적으로는 “자유스럽게 살고 내 농토와 조상을 지켜야하고 내 살림을 내가 하니까 좋고”, “자녀의 집에 가면 손님 같은 기분”이라고 한다(사례 5, 10, 12, 13, 14, 15). 혼자 사는 여자노인들조차도 “공기도 좋지 않고 답답한 도시에 가서는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이웃과 친척들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한다(사례 1, 3, 4). 또한 이들은 언제인가는 아들이 돌아와서 이 집에서 살기를 기대하면서 혼자서 집을 지키는 의미로 살고 있다(사례 1, 3, 4).

이들 대부분이 장손으로서 투철한 장남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농현상이 뚜렷하여 농촌에 빈집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여성노인(사례 2)은 한마을에서 장남부부가 살고있으나 별거가 아들에게 좋고, 마음 편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며느리와의 갈등인 것으로 추측된다.

단독가구노인들 대부분은 건강한 편이나 70대 후반이나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관절이나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사례 5, 11, 12, 14).

단독가구노인들의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아프거나 병이 났을 때이며(사례 5), 청소나 세탁 등이 싫을 때이고(사례 2, 4, 5, 14), 독거 노인들은 대화상대가 없어 고독하고 외로운 것(사례 1, 2, 3, 4)이라고 한다.

이처럼 농촌의 단독가구노인들은 40년 이상 농촌에서 생활하였기에 농촌의 생활이 체질화되어 농촌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적이다. 단독가구를 형성한 이유도 외적으로는 자녀의 결혼이나 직장진출이지만, 내적으로는 조상숭배의식과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 없으며 단독가구로 농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해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데 건강, 사회적 접촉, 가사노동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표 1〉 단독가구노인가정의 특성

특성 사례	연령		학력		과거나 현재직업		월소득	결혼만족도		자녀수	단독가구 형성기간	부부간 의사소통 빈도	결혼 지속 기간
	남	여	남	여	남	여	남/여	남	여				
1		73		국문 이해	공무원	농사	30만원		불만족	3남 1녀	15년 (혼자 산 기간 5년)		45
2		85		무학	농사		20만원		불만족	3남 2녀	20년(10년)		56
3		77		국졸	농사	농사	80만원		보통	2남 1녀	8년(5년)		51
4		79		무학	농사	농사	50만원		보통	2남 3녀	18년(10년)		49
5	81	82	중졸	무학	공무원	농사	200만원	만족	만족	2남 3녀	20년	자주 (5회이상/1일)	60
6	75	74	국졸	국문 이해	농사	농사	200만원	만족	불만족	2남 5녀	10년	자주	52
7	66	65	국졸	무학	1일 근로자		50만원	보통	불만족	2남	3년	거의안함 (1-2회/1일)	40
8	70	64	고졸	국문 이해	농사 1일 근로자	농사	60만원	불만족	불만족	1남 2녀	10년	보통 (3-4회/1일)	43
9	69	65	국졸	국문 이해	농사 1일 근로자	농사	120만원	만족	불만족	3남 2녀	9년	보통	42
10	70	66	대졸	국졸	중등 교사	농업	200만원	만족	만족	2남 3녀	6년	자주	43
11	77	73	대졸	중졸	농업	농업	250만원	만족	만족	3남 1녀	3년	거의안함	50
12	74	74	대졸	중졸	공무원	주부	220만원	만족	불만족	2남 2녀	20년	보통	55
13	70	67	대졸	고졸	어업 조합	농사	300만원	만족	만족	2남 4녀	10년	보통	44
14	77	78	대졸	국문 이해	사업	농사	300만원	불만족	불만족	1남 2녀	10년	거의 별거하며 1년에 2-3회	58

2. 단독가구 노인가정의 가정경영실태

1) 가족관계

① 부부간의 의사소통

노인단독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가족관계 중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먼저 단독가구 형성기간과 부부간의 의사소통정도, 결혼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부부간의 만족도는 노인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들(김태현·전길양, 1997)과 같이 노인부부의 결혼만족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남자노인은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여자 노인은 8사례가 불만족하는 경향이며 어쩔 수 없이 살았다는 태도이다.

“만족헌께 살지 좋다 싶다가 어디 있어, 살다보면 법으로 사는 거지”(사례 5, 10, 11, 13)

“그 양반은 좋을랑가 몰라도 나는 싫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사례 1, 2, 6, 7, 8, 9, 12)

“딸만 낳았다고 월메나....., 탄데서 아들 낳아 갖고 왔

는데 뭐가 좋아서...”(사례, 14)

단독가구 노인부부들의 의사소통은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할 말이 있나, 농사일, 애들얘기나 하지”(사례 7, 11)

“얘기한다고 하고 얘기하나 할 말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하고..., 자주해 그걸 셀 수야 없지”(사례 5, 6, 9, 10)

“무슨 말만 하면 큰소리를 치고 결국은 다투게된다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해...”(사례, 7, 8, 12, 14)

“저녁 밥 먹고 나면, 할 일 있나, 텔레비전보고 잠들면 그만이지,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이 와서 놀고 했는데 이제는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사례 1, 2, 3, 4)

이처럼 노인부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주로 부인이 말을 걸고 남편이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은 자녀문제, 농사일에 대한 문제, 이웃에 대한 것, TV내용 등으로 단순하다. 의사소통 방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만족해하는 노부부들사이에서 대화는 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 사는 여자노인들도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이고, 대화를 나누는 가족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② 부모 자녀관계

노부모들은 기혼자녀와 동거상태일 때보다는 별거상태일 때가 자녀와의 갈등이 적다고 한 김태현(199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독가구노인들 대부분이 자녀와 별거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보면 근거리에서 사는 자녀가 자주 방문하고 부모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3-4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1-2번 만나는 자녀도 있기에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노부모들은 목이 메이며 눈시울을 적시는 경우가 있다(사례 14).

“젊은 시절에는 딸만 낳아서 딸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그저 아들 낳기만을 기원하였으나 결국 낳지 못하고 작은댁을 보아서 아들을 얻어 애지중지하고 열심히 길렀어... 며느리까지 보고 손자도 얻었어... 그러나 나만 항상 짝사랑이야, 멀리 있는 딸은 전화를 자주하고 가까

이 있는 딸들이 자주오지... 살아서는 딸이 좋고 죽어서 아들이라는데...”(사례 14)”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아들선호사상이 젊은 시절에는 부인을 아들 낳지 못하는 죄인으로 만들었고, 딸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저 아들 잘 길러서 노후를 아들에게 의탁하려고 하였으나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대도시에서의 직장 근무 등으로 멀어지게 되는데서 오는 허전함이 역력하고 정신적인 위안은 딸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사후에는 종가집이기에 아들이 제사를 이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딸은 출가외인이야, 시집가면 그만이지.. 딸들 시집 보낸 후 딸집에는 한번도 안 갔어.. 딸들이 가끔 오지... 다 잘살고 있는데... 뭘 가봐, 딸들도 잘 안 와 전화는 가끔 오지, 제사때도 아들들이 와서 지내지 어디 딸들이 제사지내나...”(사례 2, 5, 14)

“딸들이 잔정은 있지, 전화도 자주하고, 이 엄마의 속마음을 잘 알아서 뭐든지 도와주려고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외식도 시켜주고... 용돈도 잘 주지... 그것도 가까이 있는 딸이지... 멀리서 살고 있는 딸은 전화도 한달에 한번 정도하고, 만나는 것은 1년에 3-4번 정도야... 나도 차 타기 싫어서 잘 안가고... 아들은 마음 든든하지만 잔정은 적어... 전화하는 횟수도 딸보다는 적지.. 그저 자녀는 가까이에서 살아야해...”(사례 3, 7, 12)

위 사례에서처럼 80세 이상의 단독가구노인들은 전통적인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딸에 대한 정서적기대도 없이 전통적으로 딸은 출가외인으로서 시집살이나 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별거하는 장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80세이하의 노인들은 딸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특히 가까이 살아야 부모자녀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예전처럼 높지 않은 것 같다.

전화 통화에 있어서도 <사례 6, 8, 9, 10, 12>를 제외하고는 큰아들, 큰딸이 많이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거의 모든 자녀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사례 9, 10>에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보여진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가 가까이 살기를 희망하나 자녀들의 직장이 대도시에 있고, 손자녀의 교육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평균 4-5명의 자녀를 가진 노인들은 자녀들 중 최소 한 명은 버스로 1시간내의 거리에서 살고 있다. 자주 방문하는 자녀들은 대부분이 택시로 30분 내외가 9사례이고 버스로 1시간 내외가 5명으로서 자주 방문하는 자녀들은 대부분 가까이 살고 있으며 자주보지 못하는 자녀들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버스로 4-5시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는 자녀들로서 부모의 느낌은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더 그리워하는 경향이다.

자녀의 방문회수와 전화통화 회수는 <사례 1, 6, 14>를 제외하고는 주요 방문자가 큰딸, 큰아들이며, 「방문회수」는 매일부터 일년단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방문회수」는 거리와 관계가 있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자녀일 경우 '매일 방문' 하였고, 원거리에 사는 자녀는 '명절과 휴가'에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대부분이 지원 받는다(사례 1, 2, 4, 7, 8). 그러나, <사례 1, 6, 8>에서는 명절이나 휴가와 같이 비정규적인 방문과 노부모의 필요에 따른 부차적인 지원으로서 정규성은 없으며, <사례 3, 5, 9, 11, 12, 13, 14>는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때는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지..... 큰아들이 줘. 잘 준다니까.”(사례2, 4, 8)

“아들들에게 학교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모두 자수성가했지... 셋째아들이 그중 잘사니까 가장 많이 주지, 집도 지어 주었고.”(사례 1)

“큰아들이 30만원, 딸들이 10만원씩... 한 달에 50만원을 온라인으로 부쳐 주었는데, IMF라 줄이라고 해서 매달 40만원씩 보내와...”(사례 4)

단독가구 노인들은 장남을 지원자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으나 사례 1은 셋째아들이 잘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의 지원정도가 딸에 비해 크고, 전반적으로 장남의 지원액이 제일 많게 나타났다

“내가 농사지어서 아들에게는 양식은 주지, 딸들에게는 1년에 1가마주고” (사례 3, 12)

“딸에게는 주지 않아, 아들에게만은 쌀도 주고 푸성귀도 계속 보내게 되지”(사례 2, 5)

“아들이나 딸에게 양식은 내가 대주고 있지,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지 못 할 것 같애. 몸만 성하면 농사지에서 자식들에게 주는 재미도 있는데... 농협에서 농사지어 준다고 미리 돈을 받았거든”(사례 6, 10, 11, 13, 14)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부모들은 아직도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농사지어서 아들에게는 양식을 거의 제공하며, 가까이 사는 자녀들에게는 채소나 잡곡까지도 지원해주며 생활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부모를 도와주거나 최소한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가계관리

노인단독가구의 생활경제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가계관리 상황과 소득액, 주소득원, 금전관리자 및 생활비의 사용범위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으로 주 소득원으로 자녀의 지원이나 '농사일에 의한 근로소득' 이다(사례 1, 2, 3, 4, 7, 8).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전적이 공무원이나 교사로 연금이나 이자, 토지세 등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까지이다(사례 5, 6, 9, 10, 11, 12, 13, 14). 이는 농촌여성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전체 노인의 72.2%가 농업수입, 자녀의 지원(송금) 24.5%인 것으로 나타난 임평자·최규련(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본인자금이 31.2%, 자녀의 지원이 61.1% 그리고 국가나 사회보조가 8.6%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농촌단독노인가구는 빈부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촌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단독(노부부)가구에 있어 금전관리는 '남편관리형(사례 5, 9)' '아내 관리형(사례 6, 7, 10, 11, 13), '공동관리형(사례 8)' 및 '각자 관리형(사례 12, 14)'로 나타났다

“이날 평생 남편이 시장 보아 오고 꼭 필요 할 때에 만 돈을 받아, 그러니 내 마음대로 손자녀 용돈 한푼 주지 못해.”(사례 5)

“그 양반 자린고비아, 농토만 넓히려고 저축이야, 필요할 때에만 돈을 타 쓴다니까.”(사례 9)

“모든 살림살이는 내가 하지, 그 양반은 아무 것도 몰라 상관을 안 하지, 돈 가져다 나누면 그만이야.”(사례 6, 7, 10, 11, 13)

“나는 젊은 시절부터 각자 살아 큰 돈은 (세금이나 축의금, 의료비) 그 양반이 지출하고 나는 작은 일에 지출을 한다니까 반찬거리를 산다든가, 옷 같은 것은 내 돈으로 내가 사지.”(사례 12, 14)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계관리는 아내관리형이 5사례로 가장 많고 남편관리형은 2사례, 각자관리형 2사례로 나타났다. 각 관리유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다.

남편관리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남편형으로, 극히 절약적인 사례이며 아내관리형의 노인여자들은 생활이 자유스럽고 자기의 주장이 확실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생활비의 사용범위는 주로 의식주, 교통비, 제사비용, 의료비 등이나, 의외로 식생활에는 적은 비용이다.

“쌀 농사도 짓고, 푸성귀는 밭에서 길러먹는데, 특별한 것 해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들겠어”(사례 1, 2, 3, 4, 5)

“한 달에 한번씩은 고혈압으로 병원에 가고(사례 11, 12),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니까 떨감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일러라서 돈이 많이 든다고... 전기요금도 많고. 종가 집이라서 제사가 많아, 제사비용도 많이 들고.. 한번 제사상을 차리려면 15-20만원은 들어... 1년에 설날과 추석은 제외해도 4-6만상이거든..”(사례 3, 10, 11, 12, 13, 14)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돈은 항상 부족하지, 아직도 결혼 안 시킨 막내아들이 있어, 집도 사주어야 하고...”(사례 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상 대대로 농촌에 터전을 마련하여 단독가구가 된 경우로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있다. 생활비는 주로 의식주비용에 사용되나 전기료, 난방비, 의료비, 제사비용으로 사

용된다고 한다. 가계관리 유형은 아내관리형이 많으며, 몇 사례에서 아직도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려는 노인가정도 있다

3) 가사노동 실태

가사노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영역을 식사준비 및 뒤처리, 청소, 세탁, 구매로 나누어 가사노동 시간, 가사노동 태도, 가정 기기 활용의 3개 영역을 살펴보았다.

단독 가구노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것이 뚜렷하다(사례 2, 5).

노인이 되면 가사노동 전반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한은진·채옥희(1995)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자노인의 나이가 60-70대주부들은 아직도 가사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자녀나 남편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가사노동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사례 7, 8, 9, 10, 12, 13).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그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혼자 살거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식사준비’와 ‘청소’를 싫어하고, ‘세탁’이나 ‘구매’는 좋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여자노인의 건강상태와 연령이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식사는 3끼를 다먹지만 밥짓는 것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12는 한번 지어서 저녁까지 먹으면 밥맛이 없기에 조그만 한 숟으로 하루에 두 번 짓는다고 한다. 설거지는 식후 항상 치우기 때문에 3번씩하고, 청소도 거의 매일 1회 이상하며, 세탁은 1-2일에 한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사노동시간은 식사준비와 설거지에 3시간30분에서 50분까지 다양하고, 구매에는 평균 3-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이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거리상 3시간이상이 걸리지만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1개월에 1-2회 정도이며 사례 5는 시장에 가서 구매하는 경우는 일생동안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지금은 아들내외가 구매해오며 생활필수품은 상인들이 트럭에 물건을 싣고 마을에 오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고 한다. 요즘은 김치도 며느리가 담가오고, 부엌도 입식이

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등을 사용하므로 생활하기가 편하다고 한다.

농촌의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된 것 같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거나 부엌바닥이 재래식으로 흙바닥인 경우는 사례 2, 3, 7에서만 볼 수 있었다. 가스보일러나 가스레인지 등이 대부분 설치되었으며 냉장고는 필수품이 되고 있다.

“먹고사는 일이 가장 문제지, 별거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기가 싫어, 시간도 많이 걸려... 빨래는 요즘은 비누 좋고, 햇볕 좋은데 문제가 없어, 수도 틀 잘나오고... 몸만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집안 청소는 나도 하지만 애들이 와서 해주지, 마당도 깨끗이 쓸고, 부서진 곳도 손봐주고... 뭐 자원봉사자가 해준다고? 안될 말이지 자식들이 있는데...”(사례 1, 2, 3, 4)

“이제는 정말 귀찮아 먹고사는 일이... 그렇다고 시내에서 직장가지고 생활터전을 이룬 이들을 시골로 불러서 같이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이곳 정리해서 아들한테 갈 수도 없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등 모두 하기 싫어 저 양반이 건강했을 때에는 마당도 쓸고 밖에 일은 돌보았지만... 나도 이제는 힘들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가정부들이 시골에 오려고도 안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 김치는 담아오지.. 제사음식도 며느리가 해오며 밥만 이곳에 와서 해”(사례 5)

혼자 사는 여자노인들은 식생활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것으로 보이며 빨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사례 5에서처럼 80세의 노부부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가사노동에 한계를 느끼며 모든 가사노동을 부담스러워한다. 피출부나 가정부를 채용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장남과 같이 생활하려고 해도 대대로 내려온 터전에서 떠날 수도 없어 어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독가구노인들을 위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집단화 등 자원봉사자와 가정도우미의 가사보조와 식사제공·배달은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한정되어있다(김경혜, 1995). 한편 건강이 나빠도 농촌노인들의 의식속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책임임을 강조하거나 이웃이나 친척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

적이다.

“가까이 살고있는 딸이 김치도 담아오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 그저 가까이 사는 자식이 내 자식이야.. 먼 곳에 사는 자녀는 그저 그리울 뿐이야...”(사례 3, 12, 14)

“밥과 국은 하루에 한번 만해서 점심과 저녁을 먹게 되지.. 반찬이랄게 별거 있어 김치하고.. 내가하는 것은 밥하는 것밖에 없어 김치나 반찬은 딸, 며느리가 만들어와, 일은 날마다하지, 방에만 누워 있지는 않아. 밥하고 빨래하는 것 1-2시간이면 되지..”(사례 1, 2, 3, 4, 5)

“세탁기와 다리미는 있어도 글자도 적고 사용방법도 항상 잊어버리고 빨래감도 적으니 손으로하지”(사례 1, 2, 4, 5, 14)

“혼자 먹으니 밥맛도 없어, 때가되면 한 숟가락 떠먹고, 가사노동이랄게 뭐 있어 빨래는 손으로 주물러서하고, 청소도 걸레로 훑치고 심심하면 동네 나들이 가고 채소 밭 가꾸고.. 장남과 한마을에 살아도 합치면 아들이 해롭다는데...”(사례 2, 4)

80대에 접어든 단독가구노인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서 식사를 만드는 것도 귀찮게 여기지만, 1-2시간 하는 가사노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가전제품은 전기밥솥만 사용하고 세탁기는 글자가 적고 사용방법도 항상 잊어버려서 사용하지 않으며 빨래와 청소는 손으로 해야만이 깨끗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채소도 나누어 먹는 재미로 일하지.. 주말마다 오는 아들, 딸과 식사하는 것도 즐겁고, 내가 만든 김치와 밥이 맛있다는데, 농사는 일꾼들 얻어서 하지만 밥하는 것은 싫지는 않아. 살림살이가 뭐 어렵나, 세탁기로 빨래하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가 있으니 일도 쉽게 하지. 날마다 일 안하는 날이 어디 있어 하루에 7-8시간은 하지... 제사는 많은데 4번으로 간소화했어, 우리생전에 간소화시켜야하지 않겠어...”(사례 6, 8, 9, 10, 11, 12, 13)

혼자 사는 노인여자들에 비해서 남편과 같이 사는 70대 이하의 단독가구노인들은 하루에 7-8시간의 가사노동을 한다. 식사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자신의 솜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며, 전기기구도 활용하면서 가사노동기술이 체질화되어 익숙하기 때

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자녀들을 위하여 제사지내는 횟수를 간소화하려고 하며, 아직도 자녀들을 위해서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고, 김치도 담가주는 등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빨래는 세탁기로 하고 전기밥솥이나 가스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노인단독가구의 가정경영의 문제는 가족관계, 가계관리, 가사노동 측면에서 발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단독가구노인들이 가정경영상에서 인지하는 문제의 정도와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심층적인 직접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로 이루어 졌으며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농촌단독가구노인가정의 특성은 평균 40년 이상의 결혼지속기간동안 농촌에서 살았으며 단독가구형성기간도 평균 12년 이상이다. 자녀와 별거교류형으로 생활하는 것을 비교적 만족해하는 경향이다. 단독가구형성이유는 외적으로는 자녀의 결혼과 직장진출이며, 내적으로는 자유스럽게 살고, 내 농토와 조상들을 지켜야하기 때문이 지배적이다. 대다수가 증가집으로 소득수준이 다른 농촌보다 높으며, 장남 의식이 뚜렷하며 조상숭배와 제사의식이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정경영측면에서 가족관계와 가계관리, 가사노동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측면에서 단독가구노인들은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는 기회는 많으나 젊은 시절부터 남편 권위형 의사소통으로 대화의 방법과 내용이 단조롭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부부문화를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들중 1명 이상이 택시로 30분 이내에 거주하며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접촉이 빈번하다. 특히 근거리에 거주하는 딸들로부터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제사나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남에게 기대하고 있다. 전화통화

횟수도 매일에서 주 3회이상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자녀는 근거리에 거주하므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관리에서, 주소득원은 자녀의존형이기는 보다는 자립적이다. 소득수준은 2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 다양하다. 금전관리유형은 아내관리형이 많고 공동관리형은 한 사례이다. 생활비의 지출내용은 대부분이 의식주영역이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는 단독가구노인은 대다수가 장손집으로서 제사비용의 지출이 많으며, 건강문제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셋째, 70세이하인 단독가구주부는 가사노동시간이 하루에 7-8시간이지만 가사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임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1-2시간의 가사노동을 하지만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식생활이 부실하다. 농촌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가정부나 파출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중 식사준비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상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인의 생활은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서 경제적, 정서적, 가사노동 등 의존의 비율이 점차로 증대하고 원조가 필요한 생활과정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의 단독가구노인들은 현재의 농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들어 갈수록 의존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적인 사회적 지원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부가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준비와 부부문화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인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단독가구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가사노동이 하기 싫어 식생활에 문제가 있게되므로 건강도 더 나빠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적으로 는 가사보조와 식사제공·배달 등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복지집단임을 인식하여 자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농촌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공동식당운영이나 이웃과 친척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영수(1993), 혼자 사는 노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경제, 건강 및 정서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혜(1995), 서울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15-22.
- 3) 김태현(1999), 노후생활준비교육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22.
- 4) 김태현·전길양(1998),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67-182.
- 5) 모선희(1997), 농촌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년학회지, 17(1), 94-108.
- 6)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0.
- 7) 박경란·임춘희(1991) 단독가구여자노인의 생활적응, 인제 논총, 7(1), 301-332.
- 8) 박충선·남정림(1996), 노인단독가구의 생존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2), 81-101.
- 9) 서병숙·이현(1995), 사회적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8.
- 10) 심영 외 3인(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11) 이가옥 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임정빈외 7인(1996), 서울시 아파트거주 중년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4(3), 327-342.
- 13) 조명희 외 3인 (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사회적 관계와 가사노동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14) 조영희(1999), 노인가정의 가사노동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14-33.
- 15) 통계청(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16) 한경혜(1996),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노년학회지, 16(2), 21-38.
-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농촌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34.
- 18) 한은진·채옥희(1995), 단독가구노인의 가사노동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02-114.
- 19) 홍성희 외 5인(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인의 생활 문제 인지 및 생활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 20) www.rich.chonnam.ac.kr, 최신통계자료.
- 21) 淺田幸子外7人(1995), 高齢期の 生活經營, 家政教育社
- 22) 倉田和四生, 淺野仁(1993), 長壽社會의 展望과 課題, 미네루아서방.
- 23) 社會保障研究所(1990), 高齢社會への 生活變容, 出光書店.
- 24) 落合惠美子(1996), 21世紀家族へ 有變閣選書, 216.
- 25) Michael Argyle & Adrian Fundham(1983), Source of Satisfaction and Conflict in Longterm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1), 481-493.
- 26) Pahi, J(1989), Money and Management, Newyork : ST. Martin's Press, 54-55.